나는 교사 교육부장관을 원한다

교육의창

조재호
월계초 교사

나는 내 동료가 교육부장관으로 지금 당장 지명되기를 원한다.

교사였다가 변호사, 정치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직에 잠시 있다가 노동조합 간부를 지낸 뒤, 정치계 인연으로 장관이 된 사람도 아니다. 교사나 교수 출신으로 교육감이 되고, 다시 장관이 되려는 경력 관리형 인물이 아니다. 나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내 동료들이 교육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장관 임기 마친 후 기꺼이 교단에 서는 교사 말이다. 왜 안 되는가?

나는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투자 대비 성과'로만 계산하는 이를 거부한다. 지금 이 순간 교실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 교육을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되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부모가 직장에서 모욕을 견디며 아이 하나 바라보고 버티듯, 교육 그 자체를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경쟁 교육을 없애야 합니다", "입시를 바꿔야 합니다" 같은 바른 말, 옳은 말만 되풀이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교사 장관을 원한다.

나는 아이와 청소년을 정말로 '아는' 사람, 그들을 삶에서 만나본 교사 장관을 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해 본 사람. 학교에 처음 온 아이가 낯설어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한테 갈래요!"라고 떼를 쓸 때, 편안하고 침착하게 아이를 달래는 사람. 그 아이가 한 달 후 "선생님~"하며 매달려 웃게 만드는 마법을 지닌 사람. 통합학급 담임을 맡아, '장애'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깨뜨려본 사람. 외계인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대한민국의 '중2'〉와 함께 살아낸 사람. 점심 시간마다 다문화 학생과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소통을 하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

나는 원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왜 늘어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교사 장관을. 하루 종일 괴성 같은 소리를 내는 아이를 마주하며 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 소리쳐도 달래도 방법이 없어 절망했던 경험, 그 속에서 아이와 함께 눈물 흘려본 사람.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정서를 매일 발명해야만 했던 교사. 나는 그런 교사 장관을 원한다.

나는 가장 믿었던 아이에게 배반감을 느껴본 교사 장관을 원한다. 시험에 나올 내용만 가르치지 않고 토론식 수업을 했다고 학생에게 고발당해 교육청에 불려갔던 경험. 젊다는 이유로, 만만하다는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견뎌야 했던 시간. "내가 왜 교사를 하고 있는가?"라며, 문득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나길 바랐던 적이 있는 사람. 담배 좀 끊으라는 조언 하나에 밤낮으로 전화와 메시지로 공격당하던 날들. 결국 교단에서 생을 마무리했던 동료 교사의 '발걸음'을 같이 공명할 수 있는 교사. 나는 그 검은 점이 되본 경험이 있는 교사장관을 원한다.

나는 '동료교사'를 아는 장관을 원한다. 어린 동료가 열정의 과잉 속에서 지쳐갈 때 수다로 편안함을 나누는 사람. 관리자나 제도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 벽이 생길 때, 툭 한마디로 동료성을 회복하는 사람. 엑셀 줄 바꾸기도 어려워하는 선배 교사를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 교사의 '일'이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전·현직 교사들의 협업과 연대 속에서 완성되는 역사적 실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기재부의 숫자 논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나운 교사 장관을 원한다. 경제 성장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삶이고, 교육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정치의 들러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함께 일했던 동료 교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옥주샘, 명숙샘, 맑은샘, 건진샘, 충현샘, 보경샘, 자영샘, 은혜샘, 은영샘, 선경샘, 그리고 진숙샘… 내가 경험한 동료 교사들은 누구보다 훌륭했다. 그들은 따뜻한 리더였고 교육과 노동에 당당한 지식인이었다.

왜 안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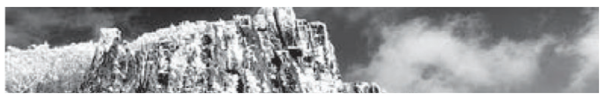
정치는 특별한 능력의 산물인가? 아니면, 교사의 일이 특별한 능력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 1학년 담임을 하고, 다문화 어린이를 품고, 가출한 위기의 청소년과 소통하며 매일 '사랑의 발명'을 해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교사의 일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단지 '교사 출신'이 아닌, '교사 그 자체인' 교육부 장관을 원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난민들이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차드의 와디 파라 주 티네 환승 캠프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서석대



낀 세대의 운명

그들은 '신세대'로 불리며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 사회는 그들을 'X세대'라 칭했다. 산업화 세대의 금욕과 86세대의 이념을 벗어나 자유와 감수성을 중시하는 '한국형 개인주의 세대'. MTV와 잡지를 통해 자율을 배우고, IMF의 먹구름 아래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들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삶을 꿈꾸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티고, 치이고, 다시 일어섰다. 그들이 바로 우리사회의 허리춤인 70년대생.

그러나 이들에겐 늘 자리가 부족했다. 앞세대는 이미 자리를 선점했고, 뒷세대는 새로운 언어와 속도로 무장해 다가왔다. 위로부터는 '기득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래로부터는 '혁신의 압박'이 밀려들었다. 70년대생은 그렇게 '낀 세대'가 됐다. 조직의 중간 허리이자, 가족의 생계 책임자이며, 정치적 대의에서조차 뚜렷한 대변자를 갖지 못한 세대. 조용히 책임을 다해왔지만, 늘 중심에서 비껴선 자리였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최근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번지는 구조조정의 칼날이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1968~1979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 단행됐다. 지난 세기 외환위기 때 사회에 진입했던 이들이, 이번엔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퇴출당하고 있다. 몇십 개월치 급여로 포장된 퇴직금은 일종의 작별 수당일 뿐, 더 이상 '당신은 필요하다'는 신호는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다. 40대는 여전히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동시에 무당층 비율도 가장 높다. 민주당의 팬덤 정치에 실망했고, 보수정당의 권위주의에도 냉소적이다.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미래를 품지 못한다.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는 70년대생을 "86세대와 2030세대를 잇는 교량 세대"라고 평가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개인주의적 감수성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세대. 그러나 지금 그 교량은 무너지고 있다. 기업도, 정치도, 사회도 이들을 떠밀고 있다.

퇴장은 조용하지만, 상실은 크다. 70년대생은 여전히 이 사회의 허리다. 고통과 전환의 경험을 모두 지닌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 그리고 연결과 공감의 감각을 가진 첫 디지털 세대. 이들이 단지 비용의 대상으로, 조용한 퇴장 행렬 속에 묻히게 놔둔다면, 한국 사회는 또 하나의 미래 자산을 놓치는 것이다.

김성수 취재2부장

社說

5·18 민주광장서 개최된 '광주만의 서사'

민주·평화 정신 세계에 알려야

광주가 세계를 향해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활시위를 겨누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리허설 격인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 결승 경기가 29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졌다. 30일엔 2025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리커브 국가대표 선수들과 대통령기 일반부 우승팀 간의 스페셜 매치와 컴파운드 국제 스페셜 매치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양궁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대표 종목이며, 그 중심엔 광주 출신 선수들이 있다. 오예진(광주여대), 최미선(광주은행), 이승윤(광주 남구청) 같은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광주의 저력을 다시 증명했다. 특히 30일 열리는 스페셜 매치에는 리커브 국가대표와 세계 최정상 컴파운드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5·18 민주광장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민주와 평화의 정신 위에서 세계와 스포츠로 소통하는 무대가 되는 순간이다. 광주의 상징성과 스포츠의 세계성이 맞닿는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2025 세계선수권대회의 운영 능력, 관중 동선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실전 테스트 무대다. 성공적인 운영은 광주가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문제는 이번 이벤트가 단발성 축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광주는 과거 세계 수준의 대회를 유치하고도 별다른 변화를 남기지 못했다. 광주가 '국제대회 유치 도시'라는 명함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해선 스포츠와 도심, 시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략이 필요하다.

5·18 민주광장에서 세계 최고 선수들이 겨루는 장면은 광주만이 만들 수 있는 서사다. 이 특별한 무대를 통해 광주가 세계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성공적인 테스트 이벤트를 발판 삼아,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광주 도시브랜드의 결정적 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 선도해야 할 우치동물원

환경부, 2호 거점동물원 지정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물원이 30일부터 환경부의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5월 청주동물원에 이어 두번째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받으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거점동물원 지정을 통해 우치동물원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동물복지를 선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일반 동물원과 달리 거점동물원은 동물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동물 질병과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과 증식 과정 운영, 보유동물 서식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은 우치동물원의 가치를 한단계 높일 좋은 기회다. 국제 멸종위기종 으로 환경부에서 특별관리하는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골절 수술에 성공하는 등 우치동물원이 가진 동물들에 대한 진료역량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실제 우치동물원은 세계 최초로 앵무새 인공부리접합수술과 뱀 턱관절 골절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정형수술로 각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 기준, 우치동물원에는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등 94종 679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 생활 환경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호랑이와 사자 등이 거주하는 공간이 생태 숲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새롭게 단장한 사슴사는 철조망을 없애고 바닥을 흙과 돌 등 친자연적으로 개선했다. 구조된 반달가슴곰과 야생 수달 등 지금까지 7종 74마리의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등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역할도 톡톡히 해왔다. 그야말로 호남권 대표 생태 학습장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14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 평가에서 우수동물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물원의 존재 이유는 동물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광주시와 우치동물원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우치동물원이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 환경에서 살기 부적합한 외래종은 줄이고,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한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거점동물원'의 존재 이유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